

〈복음의 재정립〉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7/16(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15:1-11

1.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까요?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말해봅시다.

‘복음’에 대해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목원들의 생각을 다 듣고 난 후, 목자가 결론을 내려 주지 마시고,
“2 번 질문에 그에 대한 답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2 번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번 질문은 2,3 번 핵심 질문으로 가기 위한 ‘도움닫기’ 와도 같습니다.
1 번 질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2 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밀줄 부분 참고) 당시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첫번째 페이지의 밀줄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 일만에 살아나셨다’
밀줄의 내용들은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복음에 대해 잘 정리된 아래의 말씀을 목원들과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3-4)
유대교는 ‘할례’와 ‘율법준수’를 구원에 이르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무할례자이며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할례’와 ‘율법준수’와 같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3. 토론의 마무리를 야고보가 내립니다.(13-21 절) 그가 내린 두가지
결론은 무엇이었고, 이 결론의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토론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간증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토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나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직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두가지 결론을 내립니다.(19-20 절)

- ①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전통(할례, 율법준수)를 강요하지 말자
- ②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당부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성령님에 의해 내려진
결정’ 이라는 것입니다.(28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정’ 이 옳은 결정입니다.

목원들이 토론이 마무리된 결정 두가지와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오늘은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새롭게
정립(생각)해 보게 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할례와 율법준수를 중요시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격렬한 토론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던 ‘복음이 재정립’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원들의 마음속에도 <기준에 갖고 있던 복음>과,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복음> 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